

세미나

지상중계

2012년도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외협력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45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미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첫째날(6. 28, 목) 대교협 함인석 회장(경북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발전의 척도는 바로 그 나라의 대학들에 의해 가늠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골몰하고, 대학은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들이 과연 ‘진리의 전당’이나 ‘지성의 요람’으로 불릴 수 있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주요 학사운영을 결정하는 자세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전체적으로 고등교육비의 68.9%를 부담하는데, 우리 정부는 22.3%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 문제는 그동안 민간부문에 떠넘겨온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용 부의장(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은 기초강연에서 ‘대학의 과제 - 총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부의장은 우리 대학의 현실과 미래 환경, 현재 진행형인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과제 등을 설명하고, 변화의 중심부에 있는 대학총장들의 대책을 묻고(策問) 리더십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 대학 특성화, ▲ 국제화, ▲ 재정 확충 등을 주제로 패넬 토론을 갖고, 대학총장들과 대학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6.29, 금)에는 대학총장들이 관심분야별로 나누어 7개 특별위원회 분과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제를 연구한 교수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이석열 교수(남서울대)가 ‘고등교육 정책과 자율화에 대한 논의’, 대학재정대책위원회는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대학재정 관련 법률 입법동향에 대한 대응방향’,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함영주 교수(중앙대)가 ‘법조직역 자격 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는

반상진 교수(전북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에 대한 보완적 논의’, 사학법대책위원회는 김성기 교수(협성대)가 ‘사립대학 관련 쟁점’,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서민원 교수(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현황 보고 및 쟁점 논의’, 국제화대책위원회는 손희권 교수(명지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제시할 예정인 <고등교육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대교협 산하의 3개 기구에서 연구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원은 ‘고등교육의 20대 정책과제 제안’에서 ▲ 대학재정 강화 및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대학 자율화, ▲ 대학 특성화 및 지역대학 육성, ▲ 대학 국제화, ▲ 대학원교육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 등 5개 방향에서 20대 과제를 제안했다.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정책 제안자로 위촉한 반상진 교수(전북대 교육학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논의된 관련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반값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위촉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교육학과)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관한 입장’에서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초청하여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대학 및 대학생 관련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권 장관은 ▲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전세보증금 저리 지원, ▲ 대학 기숙사 건설 지원사업, ▲ 물류분야/ 공

간정보분야/ 해외건설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질의 -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교과부 취재기자단 25명이 참석하여 등록금 문제,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학총장들을 대상으로 열린 취재보도 경쟁을 벌이는 등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쳤다.